

IRP 개인형 퇴직연금 단점

~~예~~ 적금에서는 떼지 않는 0.5% 가량의 수수료를 매년 댈다.

일반 예, 적금의 경우 자신의 돈을 금융회사가 알아서 굴리고 이자를 주지만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통장의 돈은 ^①위험도가 높은 펀드에 굴릴지 ^②확정이자의 안정적인 상품을 굴릴지 예금주가 직접 선택해야 하고 수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매년 통장 잔액의 0.5%를 떼어간다.

③ 만약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은행은 그 돈을 1년에 0.1% 남짓의 이자를 주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에 넣어 두기도 하는데 때문에 IRP 통장에 들어 있는 자금을 이번 달에는 어떤 펀드에 넣을지 선택해야 매년 떼어가는 0.5%의 수수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
IRP 상품들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시뮬레이션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혜택도 받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연금과 세제적격연금을 합해서 1,200만원 이하는 최대 5.5% 원천징수된다고 한다.

예제) 6천만원 25년 납입(종신형 수령)

월 250,000원 - 연금소득세 차감액 11,000원(종신 연금 4.4% 원천징수) = 월 239,000원 수령

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IRP의 경우 은행에 운영 수수료를 매년 따로 차감해야 된다는 부분이다.

최저로 0.5%~0.7% 정도 차감하는데 중요한 것은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.

1년 첫해 최대 300만원을 넣었을 때 0.4%를 계산하면 12,000원

2년째 최대 300만원을 넣으면 앞에 300만원을 합해서 600만원에 0.4% 계산하면 24,000원

20년 누적액으로 계산해보니까 2,520,000원이 운영 수수료로 지급된다.

매년 연말정산 혜택받는 세액공제가 연간 396,000에 20년을 곱하면 최대 공제받는 건 7,920,000원.

운영수익은 아래표를 참고로 운영수익 0.5% 3,150,000원으로 계산